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 북한산 중흥사·태고사

원융불교 탯자리 귀화식물 77종 분포

다람쥐등 포유류 20종 최근 노루서식 밝혀져

중흥사~태고사~행궁지 산갈나무등 활엽수숲

남방엔 드문 산사나무 꽃향유 제철만나 군락

글·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10월 3~4일, 중흥사 절터와 태고사가 자리한 북한산 산성계곡으로 자연의 법문을 들으러 떠났다. 한북정맥은 백두대간 철령에서 서해로 내쳐달리은 산줄기다. 북으로는 임진강을 만들고 남으로는 한강을 만들었다. 한북정맥은 이렇다 할 명산을 만들지 못한 채 내려오다가 끝자락에 와서야 비로소 돌꽃 한 송이를 피워놓았다. 그게 북한산이다. 산성계곡 들머리에 서면 원효봉과 의상봉이 좌우에 자리하고 있다. 두 봉우리는 신라불교사에 우뚝한 두 사람의 사상과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둥글고 원만하게 생긴 원효봉은 원융무애한 삶을 살았던 원효를 닮아있고, 가파르게 치솟은 의상봉은 학승으로서 빈틈 없이 살았던 의상을 닮았다. 옛 사람들은 산이름 하나 짓는데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호신作 '삼각산 태고사(2002년)', 46×74cm

계곡 옆 풀섶과 풀밭에 달맞이꽃, 서양등골나물, 망초, 개망초, 유홍초 등이 보인다. 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지역에는 77종의 귀화식물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사람들 발걸음이 그만큼 환경용량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등산로 옆 무궁화 꽃에 긴꼬리제비나비 한 마리가 앉아 열심히 꿀을 빨고 있다. 제비나비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멋지도 좋다. 날개와 꼬리가 길어서 다른 제비나비류와 쉽게 구별된다. 대개 봄 가을로 두 차례 나타나는데, 주로 햇볕 많은 산기슭에서 눈에 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북한산에서 그 화려한 꼬리를 감출 것이다.

풀섶에선 곤충들의 가을노래가 한창이다. 곱게 타오르던 꽃들도, 탐스레 익은 열매들도 한줄기 작은 풀벌레 소리로 변해버린다. 밤골에서 포장도로를 버리고 자연탐방로를 따라 걷다보면 리기다소나무, 은수원사시나무, 아까시나무, 물오리나무 등 여러 종류의 외래 수종이 눈에 띈다. 6·25 전쟁 이후 황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들이다.

북한산은 중생대말에 형성된 거대한 화강암지대에 속해서 어딜 가나 화강암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백운대와 보현봉을 잇는 서북사면의 화강암 계곡은 흙이 깨끗하고 투수성이 높아서 수질을 깨끗이 정화시켜준다. 계곡을 끼고 옛 수문터를 지나면 서암사 옛 터를 만난다. 산성 축조 당시 승군 주둔을 목적으로 지은 11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석축만 남은 폐허에 사위질빵이 나무 줄기에 올라가 하얗게 꽃을 피웠다. 꽃잎은 본래 퇴화해 없어지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흰 꽃은 단지 벌과 나비를 유인하기 위한 꽃받침일 뿐이다.

원효봉 쪽으로 북한산성의 성벽들이 그림 좋게 이어져 있다. 산성은 임진·병자 양대 전란 후 숙종 때 서울을 방위할 목적으로 쌓은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스님들과 3군문의 군사들이 약 6개월 걸려 쌓았다고 한다. 국녕사로 가는 길목 바위에 다람쥐 한 마리가 귀를 쫑긋 세운 채 지나가는 탐방객들의 말소리를 엿듣고 있다. 대서문을 지나서 30분만에서야 처음 보는 다람쥐다. 현재 북한산에는 20여종의 포유류가 보고되어 있으나, 가출한 들고양이가 늘어나면서 다람쥐와 청솔모들이 겁을 먹고 있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최근에 북한산에 노루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성문 앞에 산사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달렸다. 가을에 사과맛 나는 열매를 단다고 해서 산사나무라 지었다. 산사나무는 늦봄에 작고 흰 꽃이 피는 아교목이다. 북방계 식물이라서 남도지방에서는 보기드문 나무다. 열매는 산새들의 겨울 양식이다. 암문 앞 양지바른 곳에 벌개미취, 산국, 쑥부쟁이들이 엉켜 피었다.

중흥사는 고려말 태고 보우국사가 머물며 5교 9산을 하나로 통합한 원융불교의 탯자리이다. 조선 숙종 때는 136칸으로 증축해 산성을 지키기 위한 승영(僧營)으로 삼았다. 한때는 산성 내 11개의 사찰을 거느린 대찰이었으나, 일제 때 방화로 소실된 후 폐허가 되어버렸다. 다행히 지난 봄에 국사 탄신 7백주년을 맞아 서암 큰스님을 모시고 중창 불사의 삽을 들었다. 4칸짜리 대웅전의 뒷마무리가 한창이다. 중흥사 돌계단을 올라서면 풀더미에 묻힌 석축 위에 여러 그루의 산수유가 줄지어 심어져 있다. 줄기가 꽤 굵은 걸 보니 그 옛날 중흥사 대중 스님들이 심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수유는 중국의 산동 처녀가 신라로 시집 올 때 갖고 들어왔다는 전설이 있으나, 아무래도 신라 유학승들이 약재나 다재(茶材)로 쓰기 위해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산수유는 햇볕을 좋아하는 양수(陽樹)로, 한강 이북에서는 생육이 왕성치 않지만, 이곳 산수유는 올가을에도 열매를 엄청나게 달았다. 늦싸리꽃이 시나브로 떨어지고 있다. 휘장처럼 드리워진 줄기에 꽃가루를 뿌린 듯 화사하게 붙어있던 작은 진분홍 꽃들이다.

◇짚신나물

◇제비나비

◇장지뱀

◇꽃향유

중흥사 주변은 활엽수들이 군단을 이루고 있다. 특히 중흥사~태고사~행궁지에 이르는 지역은 북한산에서도 활엽수숲이 건실한 곳으로 꼽힌다. 북한산의 대표적 참나무인 신갈나무를 비롯하여 딱총나무, 땅비싸리, 만주고로쇠, 버드나무, 병꽃나무, 보리수, 붉나무, 산딸기, 생강나무, 쥐똥나무, 개벚나무, 개옻나무, 고욤나무, 굴참나무, 귀룽나무, 누리장나무, 느티나무, 당단풍, 덜꿩나무, 산딸나무, 산벚나무, 서어나무, 싸리나무, 아광나무, 졸참나무, 쪽동백, 참개암나무, 참빗살나무, 철쭉, 팥배나무, 함박꽃나무 등이 대화엄을 이루고 있다. 개울을 건너 태고사 텃밭들이 묵밭처럼 풀더미에 묻혀 있다. 보우국사의 은둔처였던 태고사는 부도탑과 석비 말고는 옛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난 세기에 화마가 지나간 후 현재 가람배치도 많이 뒤틀려 있고, 일손 부족으로 조경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태고종에서 부지 4천여평을 매입하여 태고사를 성역화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중성문~중흥사~태고사 일대는 초지와 묵밭이 있어서 여러 종류의 가을꽃들을 볼 수 있다. 지난 여름 한철 봄을 내던 참나리, 말나리, 현호색, 각시붓꽃, 태백제비꽃, 족도리풀, 엉겅퀴 등이 사라진 산기슭 초지에 눈괴불주머니, 꽃향유, 짚신나물, 물봉선, 이삭바꽃, 닭의장풀, 감국, 여뀌, 왕고들빼기, 마타리, 기름나물, 산국, 쐐랭이, 향유와 같은 가을꽃이 대물림을 하고 있다. 소릿길 주변으로는 들국화류보다 골풀과에 속하는 꽃향유가 제 세상을 만난 듯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꽃향유는 가을 북한산에서 들국화류만큼이나 흔하다. 한해살이 풀로, 키는 60cm 안팎이다. 네모난 줄기 끝에 자주색 작은 꽃들이 방망이처럼 엉켜붙어서 난다. 향기가 좋아서 이름값을 하는 꽃이다. 노란꽃이 피는 짚신나물은 여러해살이풀로, 줄기와 가지에 부드러운 잔털을 갖고 있다.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노란 꽃이 총상차례로 피는데, 들판이나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눈에 익은 꽃이다. 봄날이면 산중절에서는 보살님들이 이것을 뜯어다 나물로 내놓기도 하고, 약방에서는 말려두었다가 지혈제로도 썼다.

눈괴불주머니는 습기가 많은 계곡 주변에서 이따금 눈에 띄는 두해살이풀이다. 키는 크지만, 줄기와 가지가 연약하다. 초가을에 무리지어 길이 2cm 가량의 노란꽃을 피운다. 꽃도 매우 연약해보인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연약한 것은 자기를 지키는 독을 갖고 있다.

태고사 주변의 당단풍이 조금씩 홍조를 띄기 시작했다. 시간도 저마다 자리가 있다. 10월 중순의 단풍은 설악이 제 자리이고, 10월 하순의 단풍은 북한산 기슭이 제 자리이다. 당단풍은 다른 단풍잎보다 큰 편이다. 열편도 11개까지 갈라진다. 한강유역의 산에서 보는 단풍은 거의 당단풍이다. 북한산 당단풍은 신갈나무의 우점도가 높은 350미터 이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숲이 그윽한 곳에서 관찰되는 산팔나무는 나무 재질이 매끈하고 단단해서 쓸모가 많다.

태고사 아래 바위틈에 장지뱀 한 마리가 나와 가을햇살을 쪼고 있다. 가을햇살에 몸데우기가 끝나면 동면에 들어간다. 도마뱀은 몸통 중앙에 28줄의 비늘줄이 있는 데 비해 장지뱀은 8~10줄 이다. 도마뱀에 비해 머리와 주둥이가 길며, 주둥이 끝이 뾰족하다. 도마뱀에 비해 덩지가 조금 크고 꼬리도 긴 편이다. 곤충 등을 잡아먹고 산다.

한 무리의 탐방객들이 등 뒤에서 왁자지껄 올라온다. 어디로들 가는 걸음인가, 마치 활치산들처럼 숨도 쉬지 않고 급한 걸음들이다. 등산로의 흙과 바위들이 망가지고 나무들의 뿌리가 드러나는 새플로라이트도 모두 저 급한 걸음 때문일 것이다. 급한 걸음일수록 산은 더 망가진다. 자연을 생각하면, 산길도 징검다리 건너듯 할 일이다. 행궁지를 지나면 이윽고 대동문이다. 능선에 오르면 지나온 숲이 내려다보인다. 산은 대개 위쪽은 건조하고 척박한 반면 아래쪽은 토양층이 깊고 기름지다. 따라서 경사면, 능선, 계곡 등등 지형적 특성에 따라 살고 있는 나무들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능선 주변에는 올라오면서 만났던 계곡의 나무들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등을 돌려 발아래를 굽어보면 온통 회색빛인 서울 도심이 보인다. 자연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인간의 문명이란 자연에게 있어서 한낱 암적인 환경일 뿐이다. 문명세계란 결국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한 흔적에 다름 아닐 것이다. 문명이 지나간 자리는 자연생태가 하나같이 초토(焦土)로 변해있다. 오늘날 세계 10대 도시문명을 자랑하는 서울의 운명도 그런 역사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새로 생겨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이다.

양초냄새와 그을음에서 해방시켜 드립니다!

15년 역사의 불교양초 제조사 삼환양초가 제안해 하는 특별한 양초

식물성 양초

① 식물성양초 원기둥 – 지름 7.4cm x 29cm
② 식물성양초 돈타레 – 지름 5.6cm x 27cm
③ 식물성양초 밀대 – 지름 4.6cm x 26cm
④ 식물성 6각호 – 지름 7.5cm x 30cm
⑤ 식물성 복(福)초 – 지름 6cm x 24cm

제조방법 – 식물성왁스(팜유에서 추출한 왁스) + 파라핀왁스(공업용왁스) 혼합특수공법으로 제조 (팜유란 야자열매에서 추출한 식용기름이며 국내에서는 라면의 튀김용으로 사용하여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는 모든요리에 사용하는 식품 식용유입니다.)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② 방울(용이미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⑥ 밀대양초
지름 4.6cm x 25cm
(백색, 핑크, 청색, 살색, 적색연두, 전사지–연화반야심경,무지개)
⑦ 금대(방대)양초
지름 3.4cm x 22.5cm
백색,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⑧ 돈타레 양초
지름 5.6cm x 45cm
백색, 적색, 청색, 핑크, 노랑, 전사지, 연화, 호랑이, 용, 반야심경

삼환양초공업사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35-16 전화 : 031-766-0242 / 팩스 : 031-766-0233

불교용품전문쇼핑몰 마 하 몰 – 특판기획상품

사천왕 등(燈)

통일신라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나원리 5층 석탑(국보 제 39호)의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의 찟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늬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원목과의 어우러짐 속에 은은한 멋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전통 등 입니다.

※ 사천왕은? 부처님의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수미산에서 동(지국천왕), 서(광목천왕), 남(증장천왕), 북(다문천왕)의 네 방위를 지키며 불법수호와 사대부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재 료 : 오동나무 규 격 : 12Cm×12Cm×22.5Cm

※ 전통문양등 시리즈 – 반야심경등, 사신도등, 팔등, 사군자등, 사물놀이등(판매가 35,000원)

· 정상가 ~~78,000~~원 → 할인가 39,900원

회담석 방석

살아 숨쉬는 회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이 일상 생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직장인나 수험생 또는 스님들이나 수련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방석이 될 것이며, 앉아 있기만 해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시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회담석 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방석 사이즈 (385mm X 355mm)
· 색상 종류 :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 판매가 : 198,000원

※ 회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힘과 일은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디지틀 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휴대용 디지틀 불경 룸비니 시판

부처님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불경 역시 내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는 언제 어디서나 불경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 속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최초로(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약찬게독경시 스님의 쉽 고르는 부분을 끊어짐 없이 녹음하여 불자님 들이 따라 하기가 편합니다. (테이프와 CD에한함)

사이즈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경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인내멘트가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선택한 경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크 기 : 담배각 크기(8.6 × 5.2 × 2.0Cm)
이어폰 증정
경전종류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화엄경약찬게, 금강경, 법성게

· 정상가 ~~75,000~~원 → 할인가 35,000원

히트 인기상품 용무늬 풍경세트

침실출입문 천장에 달아 놓으면 풍경의 맑은 소리가 공간기운을 살리게 된다.

· 판매가 : 30,000원(2개 1set)
· 규 격 : 높이 83mm × 지름 57mm
· 재 질 : 황동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1,600여종의 불교용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2)732-1520